

# 변화 리더십 직원 교육 사례 영상

(구성 예)

2016. 04. 08

[12분 내외]

# SUMMARY

---

1

사업명

변화 리더십 교육 영상

2

목적

건강하고 성숙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함양으로 기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

대상

사내 임직원

4

메시지

상대를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

# SYNOPSIS

장 르	드라마 형식 (사례 영상)
영상 타이틀	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. 시그널 (가제)
러닝 타임	12분 내외
기획 의도	<p>무심코 행한 일상의 작은 행동과 습관들이 나비효과와 같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. 본 영상을 통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하고 직원들의 행동 변화에 동기부여 한다</p>
표현 콘셉트	<p>인기리에 증영된 드라마 시그널의 컨셉 패러디.</p> <p>즉, 무전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며 과거를 바꿔 현재와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컨셉의 드라마 타이즈 형식으로, 과거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정적인 사례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며 결과적으로 성과로도 이어지게 되는 스토리를 흥미롭게 전개한다</p>

# SCENARIO

구 성	화 면	내 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오프닝</b></p>	<p># 드라마 시그널의 타이틀 송 BGM</p> <p># 시그널 드라마 타이틀 방송이 나가 듯이, 화면 연출을 패러디하여 앞으로 전개될 드라마 속 장면들과 배우들의 모습이 스틸 컷으로 보여진다.</p> <p># 화면 전개 되는 가운데 # 무전기 지지직- 거리는 소리</p> <p># BGM 음악 잠시 커지다가, 타이틀 in</p> <p><b>타이틀 :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. 시그널.</b></p>	<p># 무전기 속 김대리의 목소리 : 오 과장님... 오 과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?</p> <p>하.... 이 무전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요. 미래는...바뀔 수 있습니다.</p> <p>절대 포기하지 말아요. 저도 과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</p>

# SCENARIO

구 성	화 면	내 용
<p><b>BODY</b></p> <p><b>사례 1</b></p>	<p>자막 : 현 재</p> <p># 어지러운 사무실의 한 칸에서 절박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잡고 있는 주인공 성대리</p> <p># 쌓여있는 서류들을 이것 저것 살펴보다가</p> <p># 무전기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.... 책상 위에 친절하게 간단한 매뉴얼이 적힌 종이도 있다.</p> <p>종이의 글씨 " 이 무전기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무전기를 켜는 순간, 당신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과거의 누군가와 연결될 겁니다"</p> <p># 그러다가 문득 김 과장 쪽의 책상으로 시선을 던지는데, 책상 위에 김 과장의 사원증이 놓여져 있고 사진 속 김 과장의 표정은 세상만사 모두 짊어 진 어두운 표정이다.</p>	<p>성 대리 : 해결안 된 미제 계약 건이 너무 많아. 대체...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</p> <p>성 대리 : 믿기지 않지만... 그 방법 밖에는...</p>

# SCENARIO

구 성	화 면	내 용
<p><b>BODY</b></p> <p><b>사례 1</b></p>	<p>자막 : 과거</p> <p>(사례 1)</p> <p>#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심통 맞은 표정의 김과장과 김과장의 눈치를 보며 함께 내리는 유 사원.</p> <p># 같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 눈치 보며 인사하는 직원들, 그리고 막 책상에 앉으려는 유 사원에게 김 과장은 급한 성격 탓에</p> <p># 아직 컴퓨터도 못 켜 유 사원</p>	<p>김 과장 : 유00씨. 어제, 얘기한 거 다 처리 했어? 출력해놓은 거 지금 가져와봐.</p> <p>유 사원 : 아... 그거 아직, 마무리를 못했습니다. 어제 오후에 시키신 거라서 오전에 최종 점검 한번 더 해보고 하려고.</p> <p>김 과장 : 아니, 어제 그거 때매 야근한 거 아니었어? 대체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린 거야, 내 성격 몰라? 그럼 지금까지 한 것만이라도 가져와봐. 내 참... 일도 안 끝났는데 퇴근을 하고...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...</p>

# SCENARIO

구 성	화 면	내 용
<p><b>BODY</b></p> <p><b>사례 1</b></p>	<p># 유 사원, 한숨 쉬며 서류 가지고 김 과장에게 가져다 주는데, 그 앞에서 맘에 안 드는 티 팍팍 내며 서류를 넘겨보다가</p> <p># 풀이 죽어서 자리로 돌아온 유 사원에게 옆자리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</p> <p># 유사원, 겨우 웃어 보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은 표정이 좋지않다.</p> <p># 그 모습을 슬쩍 바라보는 김 과장, 자신도 내심 신경이 쓰이는 듯.</p> <p># 점심 시간, 구내 식당에서 팀원들과 밥을 먹는데 체할 듯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는 유 사원, 그 모습을 또 흘깃 바라보는 김 과장</p> <p># 탕비실에서 커피를 들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직원들, 간혹 웃기도 하며.</p> <p># 이 때, 탕비실로 들어오는 김 과장 때문에 순식간에 긴장감 흐르는 분위기.</p> <p># 안 사원이 애써 웃으며</p>	<p>김 과장 : 이거야? 이게 다야? 이게 최선이야? 대체 어제 뭐했어? 됐어. 매번 이런 식이야. 매번. 그냥 두고 가요.</p> <p>안 사원 : 꼭 아침부터 저렇게 의욕 떨어지게 말해야 하나~ 어제 늦게 전달된 거잖아요. 이거 때때 급 야근하신거 아는데... 아무튼 힘내세요. 점심에 제가 커피 쓸게요.</p> <p>안 사원 : 커피 드시게요? 저희도 막 마시고 있었어요.</p>

# SCENARIO

구 성	화 면	내 용
<p><b>BODY</b></p> <p><b>사례 1</b></p>	<p>#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만 보자, 혼자 신이 나서</p> <p># 직원들, 서로 눈치 보다가 목례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, 덩그러니 뺄뚱하게 혼자 남은 김 과장</p> <p># 하며, 믹스 커피를 타려는데 어디선가 지지직, 지지직- 하는 무전기 송신 소리가 들린다. 처음에 못 듣다가 '무슨 소리야, 뭐 고장 났나?' 하며 여기 저기 뒤져보는 김과장.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서 무전기를 발견한다.</p>	<p>김 과장 : 분위기 좋네~ 뭐 재미난 일이라도 있어? 안 사원 : 아니, 어제 개콘 얘기 하고 있었어요. 봤냐고..</p> <p>김 과장 : (나름 동참하고 싶어서) 아 요새 그 모야 아재 개콘가? 몬가 유행한다던데... 안그 래도 내가 몇 개 알아왔는데 맞춰보라고. 새우가 출연하는 사극은?</p> <p>김 과장 : 대하사극 이잖아, 대하 사극. 그럼 슈렉 어머니 이름은 뭐게? 응? 녹색 어머니. 곰은 사과를 어떻게 먹지? 베어 먹지. 순대국이랑 술 먹을 때 깨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? 술이 들깨~</p> <p>김 과장 : 내 참... 뭘 해도 안 되는 구만. 뭐라고 좀 하면 뭐라고 한다고 난리고, 좀 풀어보려고 하면 또 오버한다고 피하고... 어찌라는 건지...</p> <p>김 과장 : 이게 뭐야, 이런 게 왜 여기 있어...</p>



# SCENARIO

구 성	화 면	내 용
<p>BODY</p> <p>사례 1</p>	<p># 이 때,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성대리의 목소리</p> <p># 의미심장한 표정의 김 과장의 얼굴</p>	<p>성 대리 목소리 : 여보세요. 과장님. 김 과장님? 김 과장님이세요?            과장님, 과장님과 제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. 바꾸고 싶다면 꼭 믿으셔야 해요.</p> <p>김 과장 : 누구냐, 너....</p> <p>두둥, Coming soon!</p> <p><i>* 여기까지는 전체 상황, 캐릭터 설정이라 디테일하게 전개된 부분이 있었고 이어지게 될 뒷 사례들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보여지고 무전기를 통해 협력하며 과거의 행동을 바꿔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로 바뀌가는 내용으로 전개 될 예정.</i></p>